

# 예 향에 꽃핀 지구촌 문화축제... 시민과 먼저 통하라

## ‘문화수도 광주’ 성공 프로젝트 (5)

### (1부) 킬러 콘텐츠를 만들자

#### 4 광주비엔날레

지난 2010년 9월 21일 오전 일본 오카야마현 우노 향.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선착장에 나오시마(直島)로 가는 배를 기다리는 여행객들로 붐볐다. 특히 푸른 눈과 금발의 외국인 모습이 눈에 많이 띄었다. 이날 하루만 해도 3000여 명이 나오시마행 페리에 몸을 싣었다.

약 20분 정도 배를 타고 선착장에 내리자 거대한 조형물이 여행객들을 맞았다. 일본 출신의 세계적인 설치작가 아야이 구사미의 ‘빨간 호박’이다. 선착장 뒷편에는 직직히 미쓰비시 제련소 건물이 들어서 있지만 아야이의 작품 때문인지 산뜻한 인상을 풍겼다. 여기서 해안도로를 타고 10분쯤 차로 들어가다보니 그 유명한 지주(地中)미술관이 나왔다.

과 참여작가들은 마을 곳곳에 설치된 작품들을 함께 만들고 설치했다. 또 한 오카야마현과 가가와현 등의 대도시 미술관과 호텔, 식당, 도서관 등 대중시설 등에는 지역작가들과 학생들의 작품이 내걸렸다. 국내에서 찾아온 관광객들로 호텔과 식당, 주변 관광명소는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1회 대회의 성공에 탄력받은 세토우치 예술제는 3년에 한번씩 열리는 트리엔날레로 정례해 나갈 계획이다.

세토우치 예술제는 광주비엔날레와 유사한 점이 많다. 물론 역사와 위상에서 아시아의 넘버 1을 자부하는 광주 비엔날레로서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겠지만 지역과 현대미술의 조합, 그리고 2~3년에 한번씩 열리는 미술이벤트라는 점에서는 비슷

비엔날레 내부 특정인의 머릿속에서 결정된 뒤 이사회와 동의를 받는 등 충분한 논의와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매너리즘과 지역사회와의 ‘불통’은 아쉬운 대목이다. 언제부터인가 광주비엔날레는 특유의 답론제기 없이 조용히 끝나는 행사가 되고 있다. 비엔날레는 새로운 시대정신과 전시패러다임의 창출을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일반 전시와는 다르다.

또한 매년 90억~1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축제기간 동안 지역 미술인들과 시민들의 일상은 비엔날레와 괴리돼 있다. 일본의 세토우치가 예술제 기간동안 시민들의 일에서 축제의 열기를 느낄 수 있는 데 반해 광주는 비엔날레 전시관이 들어서던 중외공원을 벗어나면 ‘잔치 분위기’를 찾기 힘들다.

1회 때부터 광주비엔날레를 괴롭히는(?) ‘난해한 축제’라는 시선에 대한 재단의 일관한 대처도 지적되고 있다. ‘현대미술의 속성상 이해하기 어려운 게 당연’이라며 지역사회를 끌어안는 데에는 소극적인 것이다. 선교육·후관람 시스템을 통해 시민들의 안목을 높여주는 친절함이 필요하다.

### 광주 대표 문화브랜드... ‘아시아 넘버1’ 자부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시민 일상과는 괴리 국제화 조금증 떨어지고 시민 즐기는 축제로

‘세상에 하나뿐인 땅속미술관’이라는 명성 때문인지 미술관 입구에는 수백여 명이 입장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미술관은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도착한 순서대로 입장시간이 적혀 있는 대기표를 나눠주었다. 지주미술관측은 쾌적한 관람을 위해 1일 평균 약 1000명으로 입장을 제한하지만 이날 만큼은 5000여명으로 늘었다. 평소와 비교 3~4배 정도 늘어난 관람객들을 되돌려 보낼 수 없어서였다.

이처럼 관람객들이 대거 밀려든 이유는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2010’ 때문이었다. ‘버려진 섬을 예술의 낙원’이라는 슬로건으로 문을 연 세토우치 예술제는 7월19일~10월31일까지 약 100일간 일본 시코쿠 세토나카이(瀬戸内海)의 나오시마, 데시마, 메기지마, 오기지마, 소도시마, 이누지마, 오시마 등 7개 섬과 다카마쓰항 주변에서 펼쳐졌다.

지주미술관을 운영하는 베네세 그룹의 후쿠다케 소이치로 회장의 제안으로 창설된 세토우치 국제예술제는 70만 명의 관람객을 끌어 모았다. 말이 70만 명이지 대도시에 비해 접근성도 떨어지고 배를 갈아야 하는 불편을 감안하면 150만~200만 명과 맞먹는 대박을 낸 것이다.

하지만 세토우치 예술제의 가장 큰 성과는 지역사회와의 소통이라 할 수 있다. 축제기간 동안 7개 섬의 주민들

하다. 하지만 이들 축제사이의 차이가 있다면 바로 지역성과 경제효과다.

사실 광주비엔날레는 이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브랜드이자 킬러콘텐츠이다. 지난 2002년 광주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프로젝트의 주역으로 ‘캐스팅’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예향이라는 배경과 지난 95년 창설된 광주비엔날레의 경쟁력을 빼놓을 수 없다. 광주비엔날레는 현대미술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지방에서 창설 첫해 160만 명의 관람객을 동원하는 등 미술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초창기 운영주체 등을 둘러싸고 내용이 적지 않았지만 품격높은 전시와 프로그램 등으로 요코하마 트리엔날레, 상하이 비엔날레 등 주변의 견제에 불구하고 탄탄한 위상을 지켜왔다.

하지만 지난 2007년 ‘신정아 사건’을 계기로 감독선정과 이사회 운영 등이 도마에 오르면서 광주비엔날레는 예전의 명성을 잃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감독선임과 매너리즘이다. 이와관련 최근 광주시의회와 광주문화재단시협의회 주최로 열린 ‘광주비엔날레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토론회에서는 광주비엔날레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쓴소리가 쏟아졌다.

미술평론가 장석원 교수(전남대)는 “신정아 사건 이전에는 3~4명의 감독 후보들이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선정되는 투표절차가 있었지만 근래엔 추천과 동시에 임명되고 추천도

아울러 ‘국제화’에 대한 지나친 조급증도 떨쳐내야 할 과제다. 광주비엔날레가 국제적인 미술축제로 확고하게 자리잡기 위해선 외국인 감독과 국제큐레이터코스 등 대형 이벤트가 전부는 아니다. 현재 10% 안팎의 외국인 관람객을 최소 20~30% 끌어 올리고 국제 미술계에 생산적인 담론으로 임팩트를 주는 등 내실을 다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주변의 관광인프라와 연계하고 지역성을 잃지 않는 ‘글로벌리티’(Globality)를 견지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불어 광주비엔날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선 현재 285억 원에 불과한 재단기금을 최소 500억 원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지난 95년 이후 거의 매년 20억~30억원씩 적립됐던 기금은 지난 2006년을 끝으로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이 후원금 유치 등에 올인하고 영화제 관련 실무는 직원들에게 위임하는 등 역할분담론으로 부산영화제를 세계 5대 영화제로 올려놓은 것은 광주비엔날레가 참고해볼 만 하다.

김지현 목원대 외래교수는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광주비엔날레는 도시내에서의 역할과 기여 등 관계 설정에 따라 지속적인 축제로서의 승인이 달려 있다”면서 “세계적인 랭킹에 의존하는 미술인사 보다는 광주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깊게 이해하는 예술인을 감독으로 초빙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현 문화선임기자 jhpark@

문화수도 광주  
광주일보와 함께



지난 2010년 일본 나오시마, 오기지마, 이누지마 등 7개 섬과 바다를 무대로 펼쳐진 세토우치 국제예술제는 70만 명의 관람객을 끌어 모았다. 나오시마섬의 선착장에 설치된 아야이 구사미의 ‘빨간 호박’.

2012년 7월 6일(금) 오후 8시, 7일(토) 오후 5시 **광주문화예술회관대극장**

| 주최 | 광주일보사 · 광주문화재단 | 제작 | 국립발레단 | 문의 | 062-220-0541 | 예매처 | 인터파크 1544-1555

■ VIP석 : 88,000원 | R석 : 66,000원 | S석 : 44,000원 | A석 : 22,000원

2012년 7월 6일(금) 오후 8시, 7일(토) 오후 5시 **광주문화예술회관대극장**

| 주최 | 광주일보사 · 광주문화재단 | 제작 | 국립발레단 | 문의 | 062-220-0541 | 예매처 | 인터파크 1544-1555

■ VIP석 : 88,000원 | R석 : 66,000원 | S석 : 44,000원 | A석 : 22,000원



제8회 광주비엔날레에 출품된 조각가 루프레히트 가이거의 ‘붉은 회오리 바람’.

Brand Performance 2012. 6. 23 ~ 7. 21

<p>국외 초청 브랜드 공연 DANCE 김영순무용단 [Here Now So Long + 숲] Here Now So Long + 숲SSOOT 6. 23(토)~6. 24(일) 18:00 - 빛고을시민문화관</p>	<p>광주지역 브랜드 공연 THEATER 푸른연극마을 [사평역] Sapyeong Station 7. 3(화)~7. 4(수) 20:00 - 빛고을시민문화관</p>	<p>광주지역 브랜드 공연 THEATER 놀이패 ‘신명’ [언젠가 봄날에...] Some time a spring day 7. 13(금)20:00~7.14(토)18:00 - 빛고을시민문화관</p>
<p>타지역 브랜드 공연 MULTIDISCIPLINARY 중앙국악관현악단 [춤추는 관현악] Dancing Orchestra 6. 27(수) 20:00 - 빛고을시민문화관</p>	<p>국립예술단 브랜드 공연 DANCE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Swan Lake 7. 6(금)20:00~7. 7(토)18:00 - 광주문화예술회관</p>	<p>광주 브랜드 공연 MULTIDISCIPLINARY 광주문화재단 / 광주시립극단 [님을 위한 행진곡 - 지스민 광주 2012] Pieces of care for march 7.20(금)20:00~7.21(토)10:00 - 빛고을시민문화관</p>
<p>광주지역 브랜드 공연 MULTIDISCIPLINARY 타악그룹 ‘일수’ [인(人)수(水)화(火)풍(風)] Human, Water, Fire, Wind 6. 30(토)~7. 1(일) 18:00 - 빛고을시민문화관</p>	<p>타지역 브랜드 공연 DANCE 인연미 무용단 [심포카 프린세스 바리] Symphoca Princess Bari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 작품 7. 10(화)~7. 11(수) 20:00 - 빛고을시민문화관</p>	<p>http://festivalo.kr Ticket : 인터파크 1544-1555 (http://ticket.interpark.com)</p>